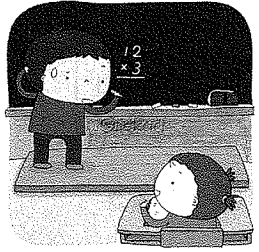


◀기쁜 우리 날들▶

세계가 한 학급이라면



<미국> 학급 반장. 공부와 싸움 아주 잘함. 집안이 갑부라서 애들이 설설 김. 반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참견해서 욕 많이 먹음. 그래도 어쩔 수 없음. 건들면 죽음이니까.

<일본> 공부는 잘하나 하는 짓이 재수 없음. 싸움도 못하는 게 집은 부자라서 친구들이 놀아주는 함. 전에 반장한테 개겼다가 개 패듯이 맞은 일이 있음

<중국> 반장하고 라이벌. 덩치가 하도 커 아무도 맞짱 뜨자고 덤비지 못함.

<러시아> 학급의 부반장이었음.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지만 병원 신세를 진 이후 약골로 변함. 중국하고는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음.

<독일> 반장이 전학 온 후 맞짱뜨다 졌음. 요즘은 공부만 열심히 함. 목표는 공대 또는 의대라고 함.

<영국> 소문에는 미국의 배다른 형이라고 함. 저학년 때 반장까지 할 정도로 잘나가던 녀석이었음.

<프랑스> 얼굴도 잘 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 여학생들에게 인기 많음.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말빨이 세고 잘난 척이 심해서 남학생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임

<남한> 숫기가 없고 말도 별로 없어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아이. 그러나 체육 시간에 축구 한판 뛰면 애가 완전히 달라짐. 반장하고는 친한 편이지만 동생 때문에 눈치 많이 보고 있음.

<북한> 키는 작지만 광과 자존심은 엄청 강해서 반장한테도 자주 개김. 가끔 학급 분위기가 싸~해지는 짓을 해서 반장한테 찍혔음. 남한하고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임.

<몽골> 옛날에 학교에 말타고 등교했다고 늘 자랑함.

<바티칸> 이탈리아네 집에 세들어 사는 아이지만 친구가 많음. 하지만 중동중학교 출신 애들과는 사이가 나쁨.

<네덜란드> 집이 지하라서 지하수가 매일 들어옴. 일설에 의하면 손가락으로 물 막는 것을 즐기는 특이한 습성이 있음.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집안에 꽃 심는 취미가 대단함.

<이란 > 주유소집 부자 아들. 얼마전 다른 학교 다니는 이라크랑 싸웠음.

<이탈리아 > 아버지가 피자 체인점 사장. 프랑스 못지않은 패션감각에다 축구라면 환장함. 집이 오래 된 문화재라서 재건축을 못한다고 함.

<스위스> 사는 곳이 워낙 험해서 언제부터인가 싸움을 안한다고 선언함. 학급의 검은 돈 처리로 유명함. 가문의 가보로 시계를 자랑함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	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(빌4:13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9권 3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7년 1월 21일
☎ 369- 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

다시 마음 다잡는 갈보리

김성국



1. 집안 일 허투루 하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. 교회일이 중요하다면 집안일은 더 중요합니다. 교회는 게으른 마음의 피난처가 아닙니다.
2.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십시오. 외국 영화 속의 부럽던 장면 하나는 말쑥한 차림으로 가족과 함께 주일예배 가던 장면이었습니다. 주일에는 그 배우가 되어 보십시오. 주일의 주인공이 돼야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. 허리우드 스타는 세계의 스타가 되더군요.

3. 스타를 갖고 오십시오. '목사라고 별 수 있을까!' 며 전혀 깊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말씀을 '저래서 목사구나!' 는 애기 나오도록 말씀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. 숨은 그림 찾기 하려는 마음의 연필 하나씩 갖고 수요일예배에 오십시오.
4. 어린 시절 일찍 일어나면 들던 말 "해가 서쪽에서 뜨겠다", 진짜 뜨게 하십시오. 금요일은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회에서 심각하게 기도 해 보십시오. 옛날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해를 멈추게 한 일도 있습니다.
5. 자주 놀라십시오. 성경 말씀을 아주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. "은혜 깊은 이 말씀이 예전에도 여기 쓰여져 있었던가?" 며 뜨악해 집니다
6. 복 많이 구하십시오.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요?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찌구요? 장사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. 지하철에서 외친 "예수 천당" 백 번=진절할 말 한 번. 전도폭팔훈련실습 백 번=진절할 행위 한 번..... 같은 함량입니다
8. 찬송가, 복음송가만 듣지 마십시오. 가끔씩 불러보는 '클레멘타인', 순수함에서 이제는 너무 멀리 와 있다며 마음을 흔들어 줍니다. 마음이 고우면 신앙도 끈게 자리 잡습니다.
9. 돈 안 되는 일을 해 보십시오. 어처구니없는 봉사의 뒤 끝,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. 맑아진 듯한 영혼을...
10.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가 보십시오. 이민교회 교인은 언제든지 들 마음 가졌는지요? 예배 후 뒷정리 손수하고 맨 늦게 돌아가 보십시오. 교회 주인장은 주님이시지만 주인 같은 마음 갖기는 "나" 하기 나름입니다. '알바' 는 정시에 출근하여 정시에 퇴근하는데 '주인' 은 가장 먼저 출근하여 가장 나중에 퇴근하더군요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로부터 도망하지 않으신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사닥다리, 전선, 호스 등은 당장 필요한 길이보다 약간 더 긴 것을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

월 2천\$의 높은 수익

헤외과전병아리감별 연구생 모집

75년도 전반기 해외취업 전문연구생을 모집함 (해외인력수출의 일환으로 본연구원은 한국최초로 유일하게 현재진행에 있거늘 일선 교육기관·구과파 및 미주에 월2천불의 높은 수익으로)

◎위탁취업 - 영·가보·거주·금제·언제·오래게·질병·조류·특수제

◎각종 우형 병아리 분양

면 학 처...미주지역 232...미주지역 232...미주지역 232

한일병아리감별기술·헤외과

◀그땐 그랬지 ▶ 병아리 감별사

배고픈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이어야 한다는 비장감으로 광부, 간호사를 이어 병아리 감별사의 해외 취업이 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을 수 있는 감각과 눈썰미는 세계 최고의 병아리감별 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. 살아남기 위해 막장과 고름 묻은 거즈와 병아리 감별을 하며 살아온 그 시절, 가난했지만 성스럽기까지한 진지한 삶이었습니다.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함께하는 찬양

*찬송 Hymn	송 13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1(시편1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도자
찬송 Hymn	송 376장	다 같이
기도 Pray		김반석 협동안수집사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시편 121:1-8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심자가 성가대
설교 Sermon	도움의 하나님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송 502장	다 같이
헌금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감사의 시간		
응답송 Response Song	여기에 모인 우리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“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
두 손에 재물 얻는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”
-성전건축헌금 어느교우의 헌금봉투에서-

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:\$2,216

총액:\$290,594

◆1월 예배위원◆

일자	기도	차량	안내
31	장현중	박일영	본당: 김순자, 윤주야
7	정덕수	백제성	현관: 최재학, 김교섭
14	김교섭	양경배	새교우: 이광희, 이근평 장유진
21	김반석	이광희	
28	김순자	이근평	

◆1월의 교회력◆

주 일	예배와 모임
7	신년주일 신년새벽기도회(2-5)
14	Holy Sepulchre farewell 주일
21	새성전입당 제직결단예배(24)
28	수요예배 시작(31)

『교회생활』 2007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	『교회등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12:30분 수요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5:55 청년부: 토 오후 5시

1. 교우소식

*한국 방문 중이었던 교우들의 귀국이 눈에 띕니다. 개혁이 많이 가까워졌음을 느껴겠습니다.

2. 오늘은 교회이전 첫 예배입니다.

*자녀들의 길 건너는 위험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드렸더니 가장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. 이제는 시간제약 받지 않고 사용 할 우리 성전을 늦지 않게 달라는 기도만 남았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

3. 갈보리교회 “명예목사 Honorary Priest” Jenny Quince

*영혼의 목자,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.
She will become a shepherd and a loving mother to lead us all.

4. 남아선교회: 남여 각각 연령대별로 구성하겠습니다.

*<30대> 3선교회. <40대> 4선교회. <50대> 5선교회. <60대 이상> Golden 선교회
*예배 후 선교회별로 Tea Time을 가지겠습니다.

*회장선출: 선교회별로 결정하여 주십시오-연장자 순 혹은 투표

5. 제직, 봉사자 결단예배 <일시> 24일(수) 7:30분 <장소> Main Hall

*2007년을 위한 믿음의 수고와 섬김을 위한 예배로 드립니다.

6. 2007년 자원봉사: <주차위원> 나중엽, 박덕철, 서재오, 최현철.

<주방위원> 김봉희, 박수현, 이기중, 조은희, 최신덕, 한상순

7. 예배장소: <주일예배, 수요예배> Main Hall <금요새벽기도회> 학생부실

8. 주일사용: 12시-오후 4시까지. 4시 이후에는 주차장 문이 잠겨집니다.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◀착한 시인들▶ 넘어져 본 사람은

이준관

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.

넘어져서 무릎에
빨갳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.

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
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
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.

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.

넘어져서 가슴에
푸른 멍이 들어 본 사람은 안다.

땅에 박힌 돌부리
가슴에 박힌 돌부리를
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.

그 박힌 돌부리가 일어서게 한다고.

가슴에 불 하나 담고 있었습니
다. 눈 빛으로 얼굴 빛으로 나
타날까봐 조심했습니다. 속으
로만 태우는 게 다는 아니지만
그것만이 목사가 할 수 있는
최선의 길이었습니.

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씨를 사
랑의 불꽃으로 바꾸라고 좋은
예배처를 주셨습니다.

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
묻어 들수록 나를 태우게 됨을
알지만 쉽게 버려지지 않는
것 같습니다.

대한민국, 뭐라고 해도 하나
님 섬기는 정성 만큼은 세계
최고라고 갈수록 고마운 마음
듭니다.